

세계불평등 보고서 2026

지은이

루카 상셀

리카르도 고메즈 카레라 (주저자)

로와이다 모쉬리프

토마 피케티

추천사

자야티 고쉬

조셉 스티글

WORLD
INEQUALITY
..... LAB

지은이:

루카 상셀
리카르도 고메즈카레라
로와이다 모쉬리프
토마 피케티

주저자:

리카르도 고메즈 카레라

연구:

마리아 호세 포조스
다니엘 산체스오르도네스

자료 총괄:

로와이다 모쉬리프

통계기법:

이그나시오 플로레스

자료조사:

마누엘
아리아스오소리오
이그나시오 플로레스
로와이다 모쉬리프
가스통 니에바스
아나 반 데 리

홍보:

알리스 파우벨

디자인:

리카르도 고메즈 카레라

누리집 및 표지 디자인:

다타비즈 센트릭

본 보고서는 아래 저자들의 저작물을 기초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파쿤도 알바레도; 마리 엔드레수; 마누엘 아리아스 오소리오; 루이스 바울루스; 니틴 바하티; 토마 블랑세; 필립 보드; 피에르 브라삭; 줄리아 카제; 루카 상셀; 마우리시오 데 로사; 조나스 디에트리히; 디마 엘 하리리; 매튜 피셔 포스트; 이그나시오 플로레스; 발렌티나 가브리엘리; 아모리 게당; 리카르도 고메즈 카레라; 홍세현; 타나삭 마크 젠마나; 로맨 루베; 클라라 마르티네즈 톨레다노; 즈썬 모; 코르넬리아 모흐렌; 마크 모르간; 로와이다 모쉬리프; 스텔라 무티; 테레사 네프; 가스통 니에바스; 모리츠 오데르스키; 토마 피케티; 앤 소피 로비야드; 엠마누엘 사에즈; 알리체 소다노; 안몰 소만치; 리 양; 가브리엘 주크만; 알바로 주니가 코르데로

본 보고서는 또한 세계불평등연구소와 협력하는 수많은 학자들의 연구물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관련정보 누리집

<https://inequalitylab.world/en/team/> and <https://wid.world/team/>

핵심 요약본 국가별 번역:

피에르 브라삭; 디마 엘 하리리; 리카르도 고메즈 카레라; 홍세현; 에네스 이식; 타나삭 마크 젠마나; 즈썬 모; 코르넬리아 모흐렌; 로와이다 모쉬리프; 다니엘 산체스 오르도네스; 마르타 산두리악; 안몰 소만치; 테오 팔로모

편집:

필립 다인스
그라함 프랭크랜드

본 보고서의 초안 작성에 피드백과 도움을 주신 아래의 모든 연구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리 엔드레수; 마누엘 아리아스 오소리오; 루이스 바울루스; 피에르 브라삭; 줄리아 카제; 알리스 파우벨; 발렌티나 가브리엘리; 아모리 게당; 로맨 루베; 클라라 마르티네즈 톨레다노; 코르넬리아 모흐렌; 테레사 네프; 가스통 니에바스; 테오 팔로모; 쿠엔틴 파리넬로; 앤 소피 로비야드; 지올리아 바라스킨; 가브리엘 주크만; 알바로 주니가 코르데로



본 보고서는 유엔개발계획, 세계불평등연구소, 유럽연합의 the Horizon 2020 WISE grant (#101095219), 유럽연구이사회의 Synergy DINA grant (#856455)의 재정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유엔개발계획을 비롯한 여러 파트너 기관의 견해를 대변하지 않음을 밝힙니다.

세계불평등보고서, 2025

Creative Commons Licence: *World Inequality Report 2026*, CC BY-NC-SA 4.0

출판사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물을 다른 언어로 번역, 출판, 재가공 하는 행위를 금합니다.

보고서 인용 시 표기: Chancel, L., Gómez-Carrera, R., Moshrif, R., Piketty, T., et al. *World Inequality Report 2026*, World Inequality Lab. wir2026.wid.world

보고서 누리집 참조: wir2026.wid.world



상자1: 2026 세계불평등보고서의 핵심 포인트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26 (WIR 2026)은 2018년과 2022년 판에 이어, 이 시리즈의 세 번째 편입니다. 이 보고서들은 '세계 불평등 연구소(World Inequality Lab)'와 협력하며 세계 불평등에 관한 최대 규모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전 세계 200명 이상의 학자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러한 공동의 노력은 불평등에 관한 글로벌 차원의 논의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세계불평등보고서는 정책 입안자, 학자, 시민들이 불평등의 규모와 원인을 이해하는 방식을 재정립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특히 글로벌 부유층의 분리주의(separatism)와 상위 계층에 대한 조세 정의의 시급성을 부각해 왔습니다. 또한 연구 결과는 국가 의회에서 G20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포럼에서 재정 개혁, 부유세, 재분배에 관한 국가적 및 국제적 논쟁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WIR 2026은 그 지평을 더욱 확장합니다. 본 보고서는 21세기를 정의하는 새로운 차원의 불평등, 즉 기후와 부, 성별 격차, 인적 자본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비대칭성, 그리고 민주 정치의 지형을 바꾸고 있는 지역적 분열을 탐구합니다. 이러한 주제들은 오늘날의 불평등이 단순히 소득이나 자산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 및 사회 생활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인적 자본에 대한 접근성은 여전히 불평등하며, 이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일 것입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아동 1인당 평균 교육 지출은 약 200유로(구매력 평가, PPP 기준)에 불과한 반면, 유럽은 7,400유로, 북미 및 오세아니아는 9,000유로에 달합니다. 이는 1대 40이 넘는 격차로, 1인당 GDP 격차보다 약 3배나 큼니다. 이러한 격차는 세대에 걸쳐 삶의 기회를 결정하며, 글로벌 부의 위계를 악화시키고 고착화하는 '대륙간 기회의 불균형'을 형성합니다. 보고서는 또한 기후 변화에 대한 기여도가 결코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대중의 논의는 종종 소비와 관련된 배출량에 집중되지만, 새로운 연구들은 '자본 소유권'¹이 배출량 불평등에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밝혀냈습니다. 전 세계 상위 10%의 자산가가 개인 자본 소유와 관련된 글로벌 배출량의 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기후 위기가 부의 집중과 분리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출과 불평등을 동시에 부추기는 금융 및 투자 구조의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성 불평등 역시 여성들이 불균형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무급 노동'을 고려하면 표면적인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띕니다. 무급 가사 및 돌봄 노동을 포함할 경우 격차는 급격히 벌어집니다. 유급 및 무급 활동을 모두 합쳤을 때 여성이 버는 소득은 남성이 버는 소득의 32%에 불과합니다. 이는 무급 가사 노동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의 61%와 대조적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지속적인 차별뿐만 아니라, 사회가 노동의 가치를 평가하고 배분하는 방식에 있어 심각한 비효율성이 존재함을 드러냅니다.

국제적 수준에서 WIR 2026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불평등을 강화하는지 논의합니다. 부유한 경제권은 여전히 '과도한 특권(exorbitant privilege)'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매년 글로벌 GDP의 약 1%(개발 원조의 약 3배에 달하는 규모)가 부유한 국가의 부채에 대한 지속적인 초과 수익률과 낮은 이자 지급과 관련된 순해외소득 이전을 통해 가난한 나라에서 부유한 나라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 역학 관계를 뒤집는 일이야말로 글로벌 형평성을 위한 출발점이자 모든 국제적 전략의 핵심인 국가간 신뢰를 구축하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국가 내부의 지역적 분열(territorial divides) 심화에 주목합니다. 많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도시 중심지와 소도시 간의 정치적 성향 격차는 1세기 동안 본 적 없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공공 서비스와 일자리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 무역 충격에 대한 노출 차이는 사회적 응집력을 분열시켰고 재분배 개혁에 필요한 연대를 약화시켰습니다.

WIR 2026은 새로운 데이터와 더불어 경제적, 환경적, 정치적 불평등이 어떻게 교차하는지 이해하기 위한 틀을 제공합니다. 보고서는 누진세, 인적 역량에 대한 투자, 개인 자본 소유와 연계된 기후 책임, 그리고 신뢰와 연대를 재건할 수 있는 포용적인 정치 제도를 통해 이러한 격차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글로벌 협력을 촉구합니다.

불평등은 오랫동안 세계 경제의 결정적인 특징이었으나, 2025년에 이르러 긴급한 주의를 요하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세계화와 경제 성장의 혜택은 소수의 계층에게 불균형적으로 흘러갔으며, 세계 인구의 대다수는 여전히 안정적인 생계를 꾸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차는 필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치적, 제도적 선택의 결과입니다.

본 보고서는 '세계 불평등

데이터베이스(World Inequality Database)'와 최신 연구를 바탕으로 소득, 자산, 성별, 국제 금융, 기후 책임, 조세, 그리고 정치 등 7가지 영역에 걸친 불평등 실태를 제시합니다.²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명확합니다:

불평등은 여전히 극심하고 끈질기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불평등은 서로 교차하고 강화하는 다차원적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불평등은 민주주의를 재편하고, 사회적 연대를 파편화하며, 정치적 합의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는 또한 불평등이 완화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합니다. 재분배적 이전 지출, 누진세,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노동권 강화와 같은 정책들은 일부 국가와 상황에서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예를 들어, 자산가들에 대한 최소 부유세(minimum wealth taxes) 도입과 같은 제안들은 교육, 보건, 기후 적응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얼마나

거대한 자원이 동원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결국 불평등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공정함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경제의 회복력, 민주주의의 안정성, 그리고 우리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심각한 불평등으로 향하는 세계

데이터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이자 가장 놀라운 사실은 불평등이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림 1은 오늘날 전 세계 상위 10%의 소득자가 나머지 90%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리는 반면, 세계 인구의 하위 절반은 전체 소득의 10% 미만만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산 집중도는 더욱 극심합니다. 상위 10%가 전 세계 자산의 4분의 3을 소유하고 있는 반면, 하위 절반의 점유율은 단 2%에 불과합니다.

상위 10%를 넘어 더 좁은 범위를 살펴보면 상황은 더욱 극단적입니다. 그림 2에 따르면, 6만 명 미만의 초고액 자산가들로 구성된 상위 0.001%가 오늘날 인류 절반의 자산을 합친 것보다 3배나 많은 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점유율은 1995년 약 4%에서 오늘날 6% 이상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이는 불평등의 지속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집중 현상은 지속될 뿐만 아니라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림 3은 극심한

자산 불평등이 빠르게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990년대 이후 억만장자와 초고액 자산가들의 자산은 연간 약 8%씩 성장해 왔는데, 이는 인구 하위 절반이 경험한 성장률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속도입니다. 가장 가난한 층에서도 완만한 성장이 있었으나, 최상위권의 이례적인 자산 축적에 비하면 그 존재감이 미미합니다.

그 결과, 극소수가 전례 없는 경제적 권력을 휘두르는 반면 수십억 명은 기본적인 경제적 안정조차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불평등과 기후위기

기후 위기는 공동의 과제이지만 동시에 지극히 불평등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림 4는 세계 인구의 하위 절반이 개인 자본 소유와 관련된 탄소 배출량의 단 3%만을 차지하는 반면, 상위 10%가 배출량의 77%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최상위 1% 부유층은 개인 자본 소유 배출량의 41%를 차지하며, 이는 하위 90% 전체를 합친 양의 거의 두 배에 달합니다.

이러한 격차는 기후위기와 관련한 계층간 취약성의 차이로 연결됩니다. 배출량이 가장 적은 이들, 대개 저소득 국가의 인구는 기후 충격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반면, 배출량이 가장 많은 이들은 기후 변화의 결과에

적응하거나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더 안전하게 보호받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평등한 책임은 곧 불평등한 위험의 분배이기도 합니다. 기후 불평등은 환경적 위기인 동시에 사회적 위기입니다.

성 불평등

불평등은 단순히 소득, 자산, 혹은 탄소 배출량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불평등은 일상생활의 구조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으며, 누구의 노동이 인정받고, 누구의 기여가 보상받으며, 누구의 기회가 제한되는지를 결정합니다. 가장 끈질기게 지속되며 어디에나 존재하는 격차 중 하나가 바로 남녀 간의 격차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은 전체 노동 소득의 4분의 1을 약간 넘는 수준만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비중은 1990년 이후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역별로 분석해 보면(그림 5), 중동 및 북아프리카에서 전체 노동 소득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16%에 불과하며, 남부 및 동남아시아는 20%,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28%, 동아시아는 34%를 기록했습니다. 유럽, 북미 및 오세아니아, 그리고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지역의 상황은 상대적으로 낫지만, 여성은 여전히 전체 노동 소득의 약 40%만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더 많이 일하면서도 더 적게 벌고 있습니다. 그림 6은 가사 및 돌봄 노동을 포함할 경우 여성이 주당 평균 53시간을 일하는 반면 남성은 43시간을 일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노동은 일관되게 낮은 가치로 평가받습니다. 무급 노동을 제외하더라도 여성의 시간당 소득은 남성의 61%에 불과하며, 무급 노동을 포함하면 이 수치는 32%까지 떨어집니다. 이러한 불균형한 책임 분담은 여성의 경력 기회를 제약하고, 정치 참여를 제한하며, 자산 축적 속도를 늦춥니다. 따라서 성 불평등은 단순히 공정함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구조적 비효율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인구 절반의 노동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 경제는 스스로의 성장 잠재력과 회복력을 갉아먹게 됩니다.

지역간 불평등

글로벌 소득 및 자산 평균은 지역 간에 존재하는 막대한 격차를 가리고 있습니다. 그림 7은 전 세계가 명확한 소득 계층으로 나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북미 및 오세아니아, 유럽과 같은 고소득 지역,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동아시아, 중동 및 북아프리카를 포함하는 중소득 지역,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남부 및 동남아시아, 서브사하라 아프리카와 같이 인구는 많으나 평균 소득이 여전히 낮은 지역으로 구분됩니다.

지역별 물가 차이를 보정하더라도 그 대조는 극명합니다. 북미 및 오세아니아의 평균 소득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보다 약 13배 높으며, 세계 평균보다는 3배 높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북미 및 오세아니아의 일일 평균 소득은 약 125유로인 반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단 10유로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이는 평균치일 뿐이며, 각 지역 내의 많은 사람들은 이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림 8은 지역 내 소득 및 자산 분포를 보여줌으로써 이 점을 강조합니다. 소득은 어디에서나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으며, 상위 10%가 하위 50%보다 항상 훨씬 더 많은 몫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자산의 경우, 그 집중도는 더욱 극단적입니다. 모든 지역에서 최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절반 이상을 장악하고 있으며, 하위 절반에게는 아주 미미한 부분만이 남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평등은 지역 사이뿐만 아니라 지역 안에서도 막대하게 나타납니다. 북미 및 오세아니아와 같은 일부 지역은 세계 평균보다 높은 평균 소득과 자산을 누리고 있지만, 여전히 내부적으로는 큰 격차를 보입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같은 다른 지역들은 낮은 평균 수준과 극심한 내부 불평등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세계 불평등 데이터베이스(wid.world)의 독보적인 강점은 가장 가난한 개인부터 최상위 부유층에 이르기까지 전체 분포에 걸친 소득과 자산을 추적하는 동시에, 수

년간의 국가별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간의 격차뿐만 아니라 개별 국가 내의 불평등까지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림 9 는 상위 10%/하위 50%(T10/B50) 소득 배율을 통해 이를 설명합니다. 이는 "상위 10%가 하위 50%에 비해 평균적으로 몇 배나 더 많이 버는가?"라는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질문을 던지는 척도입니다. 그 결과는 국가 내부에 존재하는 거대한 불평등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국가 내 불평등은 어디에서나 심각하지만, 그 강도는 일정한 패턴을 따릅니다. 유럽과 북미 및 오세아니아의 대부분 지역은 상대적으로 불평등이 덜한 편에 속하지만, 이곳에서조차 최상위 그룹은 하위 절반보다 훨씬 더 많은 자산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예외적으로 눈에 띄는데, 다른 고소득 국가들에 비해서 높은 수준의 불평등을 보입니다. 반대편 끝에 있는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남부,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은 하위 50%의 낮은 소득과 최상위권의 극단적인 집중이 결합되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T10/B50 소득 격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분배, 조세제도, 그리고 탈세

역사적 관점에서의 국가 간 불평등 연구는 정책이 실제로 불평등을 줄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림 10 은 누진세와 특히 재분배적 이전 지출(redistributive transfers)이 모든 지역에서 어떻게 불평등을 실질적으로 감소시켰는지 보여주며, 이는 시스템이 잘 설계되고 일관되게 적용될 때 특히 두드러집니다. 유럽과 북미 및 오세아니아에서 조세 및 이전 시스템은 소득 격차를 지속적으로 30% 이상 줄여왔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1990 년대 이후 도입된 재분배 정책들이 격차를 좁히는 데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모든 지역에서 재분배 정책이 불평등 해소에 효과적이었다는 증거가 있으나, 그 정도에는 큰 편차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인적 자본에 대한 접근성의 불평등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수준일 것입니다. 2025 년 기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아동 1 인당 평균 교육 지출은 단 220 유로(PPP)인 반면, 유럽은 7,430 유로, 북미 및 오세아니아는 9,020 유로에 달했습니다(그림 11 참조). 이는 1 대 40 이상의 격차로, 1 인당 GDP 나 순국민소득(NNI) 격차의 약 3 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세대에 걸쳐 삶의 기회에서의 불평등을 야기시키고, 글로벌 부의 위계를 악화시키고, 고착화하는 '대륙간 기회의 불균형'을 공고히 합니다.

한편 조세 제도는 형평성을 결정하는데 핵심적인 분포의 최상단에서 종종 실패합니다. 그림 12는 초부유층이 어떻게 과세를 피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효 소득세율은 대부분의 인구에 대해서는 꾸준히 상승하지만, 억만장자와 초고액 자산가(centi-millionaires)들에 대해서는 급격히 하락합니다. 이들 엘리트 계층은 훨씬 낮은 소득을 올리는 대부분의 가구보다 비례적으로 더 적은 세금을 냅니다. 이러한 역진적인(regressive) 패턴은 교육, 의료, 기후 대응을 위한 필수 투자에 쓰일 국가 자원을 고갈시킵니다. 또한 이는 조세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공정성과 사회적 응집력을 훼손합니다. 누진세는 공공재 자금을 조달하고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세수를 확보할 뿐만 아니라, 가장 큰 능력을 가진 이들이 정당한 몫을 기여하게 함으로써 재정 시스템의 정당성을 강화합니다. 이런 점에서 누진세는 반드시 필요한 조세제도입니다.

글로벌 금융 시스템으로 인한 불평등

불평등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 속에도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림 13은 현재의 국제 금융 구조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불평등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짜여 있는지 보여줍니다. 기축 통화를 발행하는 국가들은 지속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빌리고, 높은 금리로 빌려주며, 전 세계의 저축을 끌어들이 수

있습니다. 반면, 개발도상국들은 이와 정반대의 상황, 즉 값비싼 부채, 저수익 자산, 그리고 지속적인 소득 유출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 규제 기준(예: 바젤 III), 그리고 신용평가기관의 판단에 의해 강화된 미국 국채나 유럽 국공채와 같은 '안전 자산'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는 이러한 우위를 고착화합니다(그림 14 참조). 그 결과, 부유한 국가들은 해외의 고수익 자산에 투자하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더 저렴하게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되며, 가난한 나라들을 희생시켜 자신들을 '금융 불로소득자(financial rentiers)'로 자리매김합니다.

이는 현대의 구조적으로 불평등한 국제적 자본 교환입니다. 과거에는 식민 열강이 적자를 흑자로 전환하기 위해 자원을 수탈했다면, 오늘날의 선진 경제국들은 금융 시스템을 통해 유사한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은 자원을 외부로 유출하도록 내몰리며, 교육, 보건 의료 및 사회 기반 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역량이 제약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학 관계는 글로벌 불평등을 고착화할 뿐만 아니라, 포용적 발전을 위한 재정적 여력이 잠식됨에 따라 국가 내부의 불평등 또한 심화시킵니다.

정치적 분열과 민주주의

경제적 격차는 시장에서 멈추지 않고 정치 영역으로 직접 전이됩니다. 불평등은 누가 대표되는지, 누구의 목소리에 무게가

실리는지, 그리고 연합이 어떻게 형성되거나 혹은 형성되지 못하는지를 결정합니다. **그림 15**는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전통적인 계급 기반의 정치적 연대가 어떻게 붕괴했는지 보여줍니다. 20세기 중반에는 저소득층과 저학력 유권자들이 주로 좌파 정당을 지지한 반면, 부유하고 교육 수준이 높은 집단은 우파 성향을 띠어 명확한 계급적 구분과 재분배의 확대를 가져왔습니다.

오늘날 그 패턴은 붕괴되었습니다. 우선, 교육과 소득이 이제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 (그림 15 참조), 재분배를 위한 광범위한 연합을 유지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의 확대로 인해 계급 구조가 복잡해졌다는 사실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학력이지만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많은 유권자(예: 교사나 간호사)는 현재 좌파에 투표하는 반면, 학력은 낮지만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많은 유권자(예: 자영업자나 트럭 운전사)는 우파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변화는 국가 내 지역적 격차(territorial divides)의 부상입니다. 많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도시 중심지와 소도시 간의 정치적 성향 차이는 지난 세기 동안 보지 못했던 수준에까지 도달했습니다(그림 16 참조). 공공 서비스(교육, 보건, 교통 및 기타 인프라)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성, 고용 기회, 그리고 무역 충격에 대한 노출은 사회적 응집력을

분열시키고 재분배 개혁에 필요한 연합을 약화시켰습니다. 그 결과, 노동계급 유권자들은 현재 양 진영의 정당들로 파편화되거나 강력한 대표성을 갖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한하고 불평등을 고착화합니다.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전후 시대의 재분배 연합을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모든 지역에 혜택을 주는 더 야심 찬 정책 플랫폼을 설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연대의 붕괴는 불평등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 기반을 잠식하고 재분배 정책의 시행을 가로막습니다. 또한, 정치에서 부의 영향력은 정치적 영향력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림 17은 선거 자금이 고소득층에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프랑스와 한국의 경우, 가장 부유한 10%의 시민들이 정치 기부금의 대다수를 불균형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 권력의 집중은 엘리트의 목소리를 증폭시키고, 공평한 정책 수립의 공간을 좁히며, 노동자 다수를 더욱 소외시킵니다.

불평등을 줄이는 것은 정치적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파편화된 유권자층, 노동자들의 과소 대표성, 그리고 부의 과도한 영향력은 모두 개혁에 필요한 정치적 연합의 형성을 저해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는 충분한 의지만 있다면 재구성할 수 있는

선거 자금 규정, 정당 전략, 그리고 제도적 설계에 관한 정치적 선택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의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그 어떤 구체적인 정책 수단만큼이나 불평등 해소의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정책 제안

데이터는 한 가지 결론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불평등은 완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불평등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입증된 다양한 정책들이 존재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은 교육과 보건에 대한 공공 투자입니다.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정책적 수단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본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여전히 불균형하고 계층화되어 있습니다. 무상의 훌륭한 교육 여건을 갖춘 학교, 보편적 의료 보장, 보육 및 영양 프로그램에 대한 공공 투자는 생애 초기 격차를 줄이고 평생 학습 기회를 육성할 수 있습니다. 배경이 아닌 재능과 노력이 삶의 기회를 결정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러한 투자는 더욱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는 사회를 구축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재분배 프로그램입니다. 현금 지급, 연금, 실업 급여, 취약 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은 자원을 분배 구조의 상층부에서 하층부로 직접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잘 설계된 경우, 지금까지 특히 복지 국가 체계가

취약한 지역에서 소득 격차를 좁히고 사회적 응집력을 강화하며 충격에 대한 완충 장치를 제공해 왔습니다.

성평등을 통해서도 불평등의 고착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성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노동의 가치가 평가되고 배분되는 방식을 결정하는 구조적 장벽을 해체해야 합니다. 저렴한 보육 서비스, 아버지를 포함한 육아휴직, 돌봄 제공자에 대한 연금 크레딧 등을 통해 무급 돌봄 노동을 인정하고 골고루 나누는 정책은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드는 데 필수적입니다. 동일 임금의 엄격한 집행과 직장 내 차별에 대한 강력한 보호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결하면 기회와 보상이 성별이 아닌 기여도와 역량에 의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기후 정책은 또 다른 핵심적인 측면을 제공합니다. 기후정책을 잘못 설계하면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지만, 잘 계획한다면 불평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진세와 결합된 기후 보조금은 저탄소 기술 도입을 공정한 방식으로 가속화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사치재 소비나 고탄소 투자에 대한 세금 및 규제 또한 최상위 부유층의 배출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세 정책은 또 다른 강력한 지렛대입니다. 최상위 계층이 누진세를 통해 더 높은 비율로 기여하는 공정한 조세 시스템은 자원을 분배할 뿐만 아니라 재정적 정당성도 강화합니다. 억만장자와 초고액 자산가(centi-millionaires)에 대한 낮은 수준의 글로벌 최저한세만으로도 전 세계

GDP의 0.45%에서 1.11%에 이르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으며(그림 18 참조), 이는 교육, 보건, 기후 적응을 위한 변혁적 투자의 재원이 될 수 있습니다.

불평등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개혁을 통해서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체계는 선진 경제국들이 저렴하게 자금을 빌리고 꾸준한 자본 유입을 보장받도록 하는 반면, 개발도상국들은 값비싼 부채와 지속적인 자본 유출에 직면하게 합니다. 세계 통화 도입, 중앙 집중식 신용 및 채무 시스템, 과도한 흑자에 대한 교정적 과세와 같은 개혁은 사회적 투자를 위한 재정 공간을 확대하고, 오랫동안 세계 금융의 특징이었던 자본교환 시스템의 불평등을 완화할 것입니다.

맺음말

불평등은 정치적 선택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책, 제도, 그리고 거버넌스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심화되는 불평등으로 인한 비용은 명확합니다. 격차의 확대, 취약해지는 민주주의, 그리고 책임이 가장 적은 이들에게 가장 무거운 짐을 지우는 기후 위기가 바로 그 비용입니다. 그러나 아직 불평등 개선을 위한 개혁 역시 분명하게 가능한 상황입니다. 강력한 재분배 정책, 공정한 조세 제도, 사회적 투자가 우선시되는 곳에서는 불평등이 줄어듭니다.

해결책은 이미 명확합니다. 문제는 정치적인 의지와 결단입니다. 향후 몇 년 동안 우리가 내릴 선택은 세계 경제가 극단적인 부의 집중이라는 경로를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공동 번영을 향해 나아갈 것인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주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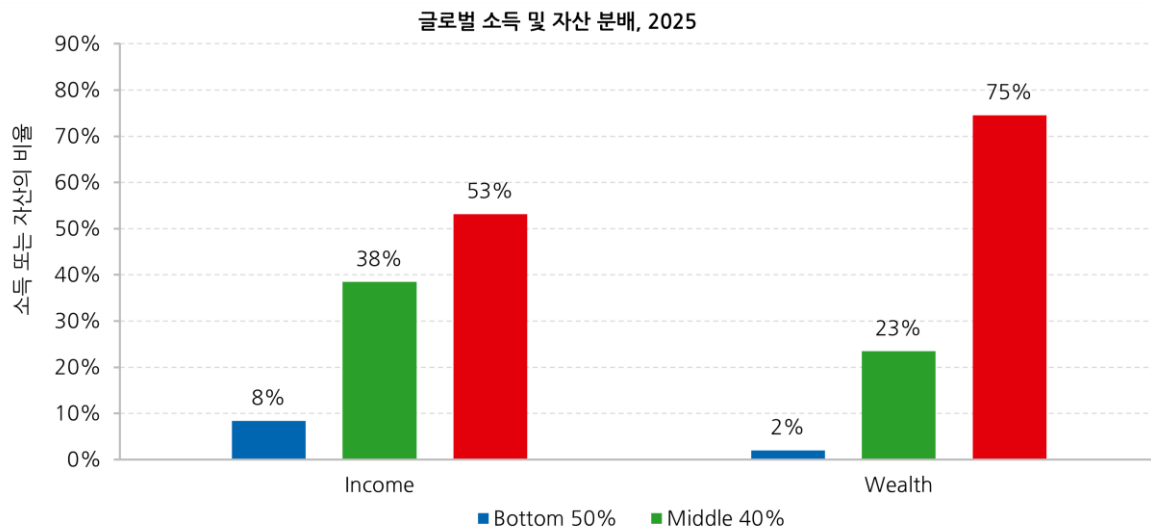
¹ Private capital ownership-based emissions refer to greenhouse gas emissions produced by firms and other productive assets that are privately owned. These emissions are allocated to individuals in proportion to their ownership shares and exclude direct household emissions and emissions from publicly owned assets (see Chancel and Mohren (2025)).

² 예를 들어 다음의 문헌들을 참고할 수 있음. Andreescu, Arias-Osorio, et al. (2025); Andreescu and Alice Sodano (2024); Arias-Osorio et al. (2025); Bharti and Mo (2024); Bauluz, Brassac, Clara Martínez-Toledano, Nievas, et al. (2025); Bauluz, Brassac, Clara Martínez-Toledano, Piketty, et al. (2024); Chancel, Flores, et al. (2025); Dietrich et al. (2025); El Hariri (2024); Flores and Zúñiga-Cordero

(2024); Forward and Fisher-Post (2024); Gómez-Carrera, Moshrif, Nievas, and Piketty (2024); Gómez-Carrera, Moshrif, Nievas, Piketty, and Somanchi (2025); Loubes and Robilliard (2024); Nievas and Piketty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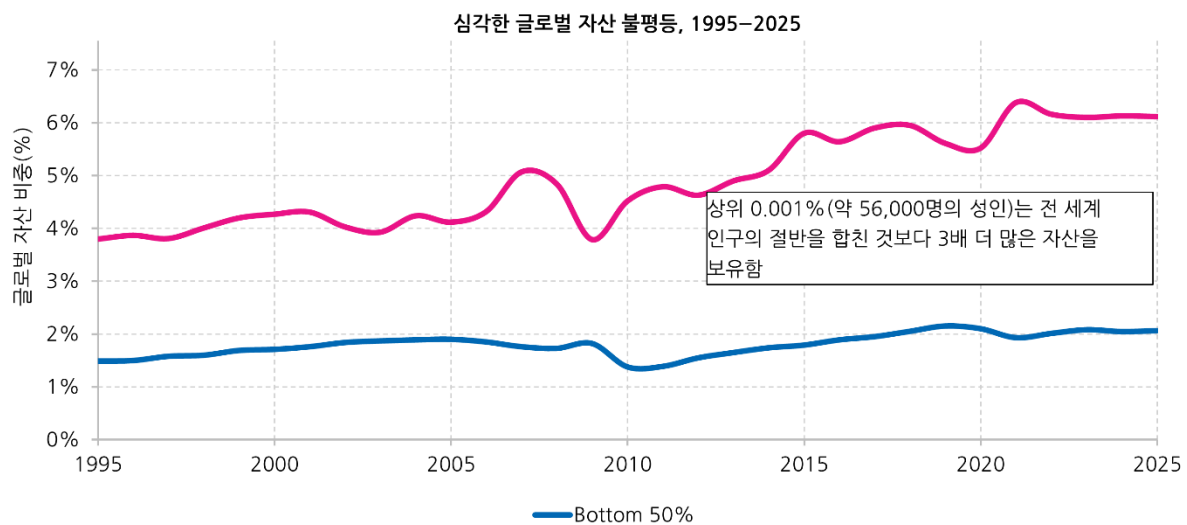
³ 예를 들어 다음의 문헌들을 참고할 수 있음. Gethin, Clara Martínez-Toledano, and Piketty (2021); Gethin, Clara Martínez-Toledano, and Piketty (2022); Gethin and Clara Martínez-Toledano (2025)

그림 1. 심각한 수준의 글로벌 불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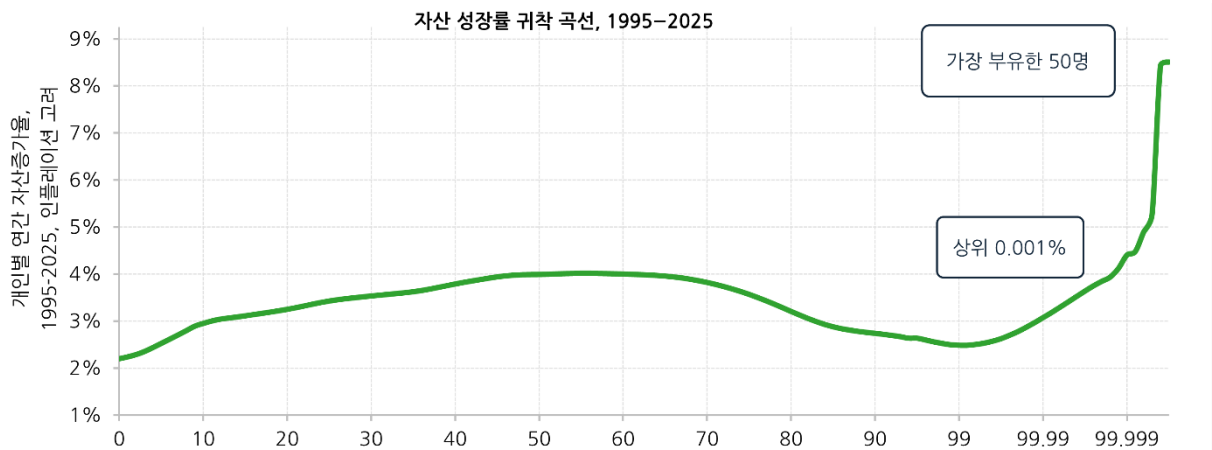
주석. 2025년 PPP 기준 글로벌 하위 50%가 전체 소득의 8%를 차지하고 전체 자산의 2%만을 차지함. 글로벌 상위 10%는 전체 자산의 75%, 전체 소득의 53%를 차지하고 있음. 참고로 상위 자산가라고해서 반드시 상위 소득자가 되는 것은 아님. 여기서 소득은 국민연금과 실업급여를 고려하고 난 이후의 소득이며 세전 소득임. 출처: wir2026.wid.world/methodology.

그림 2. 고착화되고 지속되는 글로벌 자산 불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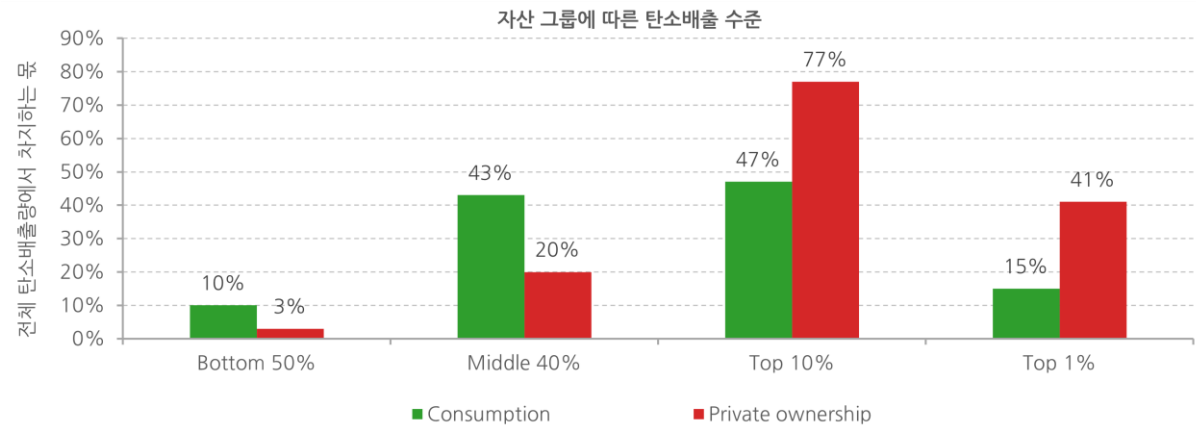
주석. 성인 중 상위 0.001% 부유층이 보유한 개인 자산 비중은 1995년 전체 자산의 약 3.8%에서 2025년 약 6.1%로 상승. 소폭 증가한 이후, 하위 50% 인구가 보유한 자산 비중은 2000년대 초반부터 약 2% 수준에서 정체함. 순개인자산은 개인이 소유한 금융자산(예: 주식, 채권)과 비금융자산(예: 주택, 토지)의 합계에서 부채를 차감한 값임 출처: Arias-Osorio et al. (2025) and

그림 3. 초고액자산가에 집중된 자산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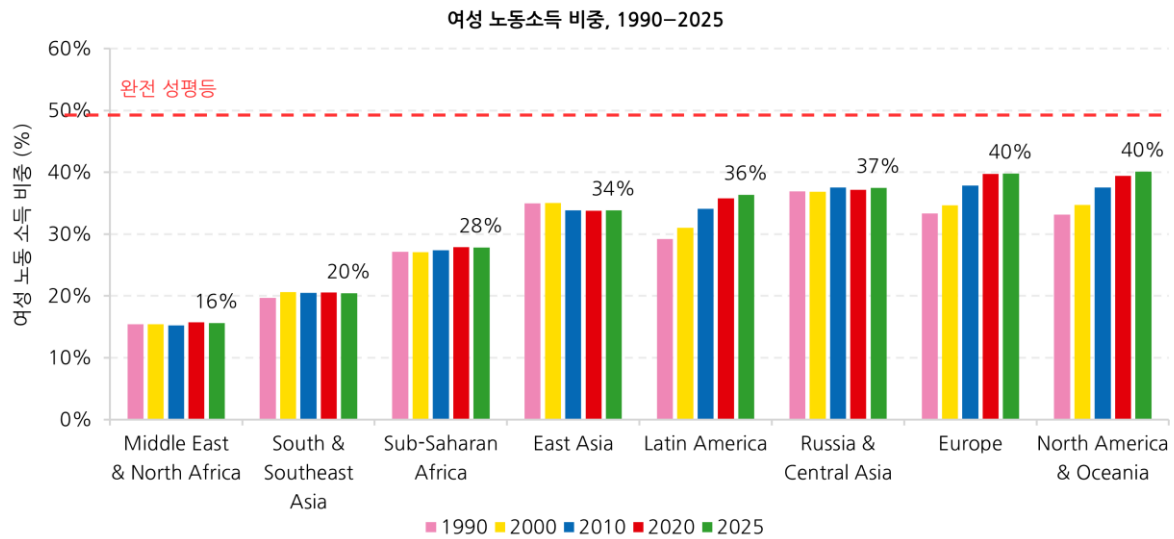
주석. 1995년부터 2025년까지 순개인자산의 성장률은 분배 그룹에 따라 크게 차이를 보임. 하위 50%는 연간 약 2%~4%의 성장률을 경험했으나, 초기 자산이 낮았기 때문에 전 세계 자산 성장의 1.1%만을 차지했음. 반면, 상위 1%는 연간 2%에서 8.5%에 이르는 훨씬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같은 기간 전 세계 자산 성장의 36.7%를 차지함. 특히 최상위 60명의 부유층을 포함한 분포의 최상단에서 가장 가파른 증가가 나타남. 순개인자산은 개인이 소유한 금융자산(예: 주식, 채권)과 비금융자산(예: 주택, 토지)의 합계에서 부채를 차감한 값으로 정의. 곡선은 중심 이동평균을 사용하여 평탄화함. 출처: Arias-Osorio et al. (2025), Chancel et al. (2022), and wir2026.wid.world/methodology.

그림 4. 일반적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초고액자산가의 탄소배출



주석. 이 그림은 세계 인구의 하위 50%와 상위 1%에 귀속되는 전 세계 온실가스(GHG) 배출량의 비중을 보여줌. 배출량은 소비 기반(최종 소비자에게 귀속되는 생산 과정에서의 배출)과 소유 기반(개인이 소유한 기업 및 자산의 scope 1 배출)으로 구분. 민간 소유 기반 배출량(총 배출량의 약 60%를 차지)에는 정부 소유 배출이나 가계의 직접 배출은 포함되지 않음. 소유 기반 접근법이 포괄하는 총 배출량 규모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소비 기반 접근법에서 명시적으로 산정된 규모와 비교적 유사함. 후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총 배출량의 30~40%를 차지하는 정부 활동 및 투자와 관련된 배출량이 분배 중립적(distribution-neutral)이라고 가정(Bruckner et al. (2022)). 집단은 각각 소비 기반 배출량과 부(富)에 따라 정의되지만, 두 분포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임. 출처: Bruckner et al. (2022) and Chancel and Rehm (2025b).

그림 5. 지역별 남녀 임금 격차



주석. 이 그림은 1990년부터 2025년 사이 전 세계 지역별 여성 노동 소득 비중의 변화를 제시함. 2025년 기준,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여성 노동자들은 전체 노동 소득의 약 16%를 벌어들이는 반면, 북미, 오세아니아 및 유럽 지역은 약 40%를 차지함.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노동 소득 비중은 1990년 27.8%였으며, 2025년에는 28.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일부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역에서 완전 성평등(Gender Parity)은 여전히 요원한 상태임. 출처: Neef and Robilliard (2021), Gabrielli et al. (2024), 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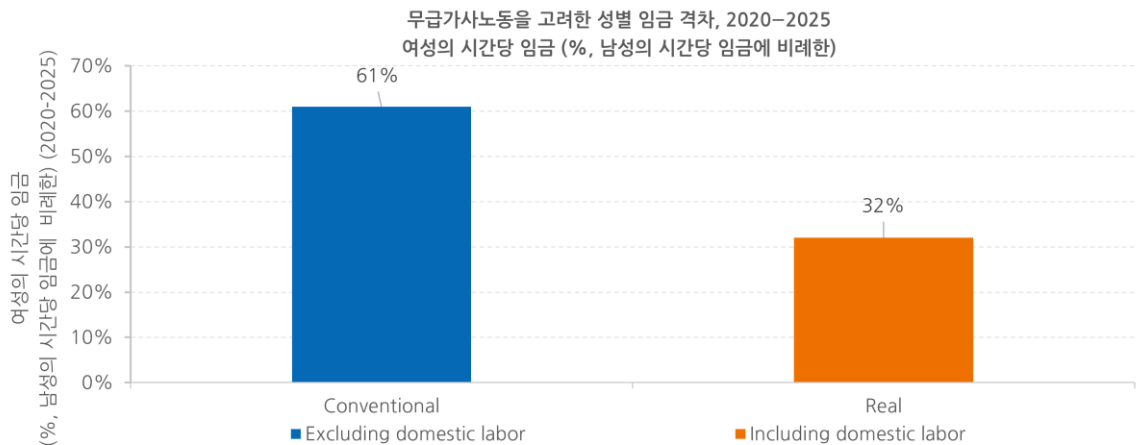
그림 6.a. 무급 가사 노동 고려한 여성의 상대적 임금 수준



주석. 왼쪽 패널은 유급 노동과 무급 가사 노동을 모두 합산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주당 더 많은 시간을 일한다는 것을 보여줌. 오른쪽 패널은 여성의 시간당 소득이 남성보다 상당히 낮음을 보여줌. 경제적 노동만을 고려했을 때 측정된 격차($\$39\% = 100\% - 61\%$)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가사 노동 시간이 포함되면 그 격차는 훨씬 더 커지게 됨($\$68\% = 100\% - 32\%$). 이 두 수치는 여성이 직면한 '이중 부담(double burden)'을 강조. 즉, 전체 노동 시간은 더 길지만, 그 노동에 대한 시간당 보상은 더 낮음. 여기서 '유급 노동'은 국민 계정에 기록되는 유급 활동을 포함하며, '무급 가사 노동'은 집안일, 요리 및 돌봄 노동을 포함. (Andreescu 외 연구진(2025)이 전 세계 시간 사용 및 소득 데이터를 사용하여 산출한 결과임) 출처: Andreescu et al.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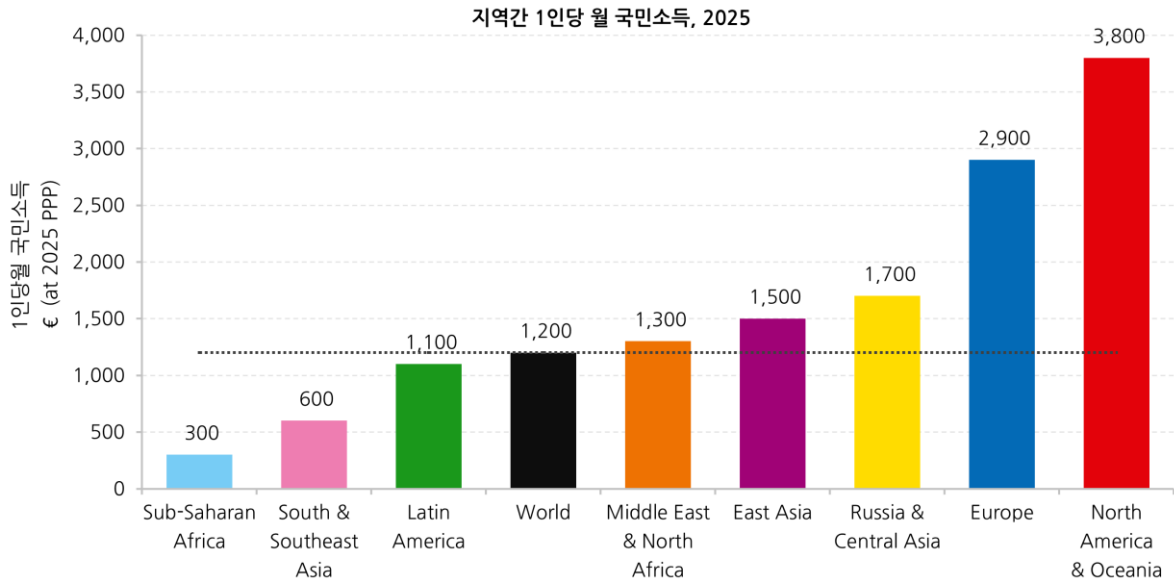
그림 6.b. 무급 가사 노동 고려한 여성의 상대적 임금 수준

핵심 요약본



주석. 왼쪽 패널은 유급 노동과 무급 가사 노동을 모두 합산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주당 더 많은 시간을 일한다는 것을 보여줌. 오른쪽 패널은 여성의 시간당 소득이 남성보다 상당히 낮음을 보여줌. 경제적 노동만을 고려했을 때 측정된 격차($39\% = 100\% - 61\%$)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가사 노동 시간이 포함되면 그 격차는 훨씬 더 커짐($68\% = 100\% - 32\%$). 이 두 수치는 여성이 직면한 '이중 부담(double burden)'을 강조함. 즉, 전체 노동 시간은 더 긴 반면, 노동에 대한 시간당 보상은 더 낮다는 점을 시사함. 여기서 '유급 노동'은 국민 계정에 기록되는 유급 활동을 포함하며, '가사 노동'은 집안일, 요리 및 돌봄 노동을 포함함. (Andreescu 외 연구진(2025)이 전 세계 시간 사용 및 소득 데이터를 사용하여 산출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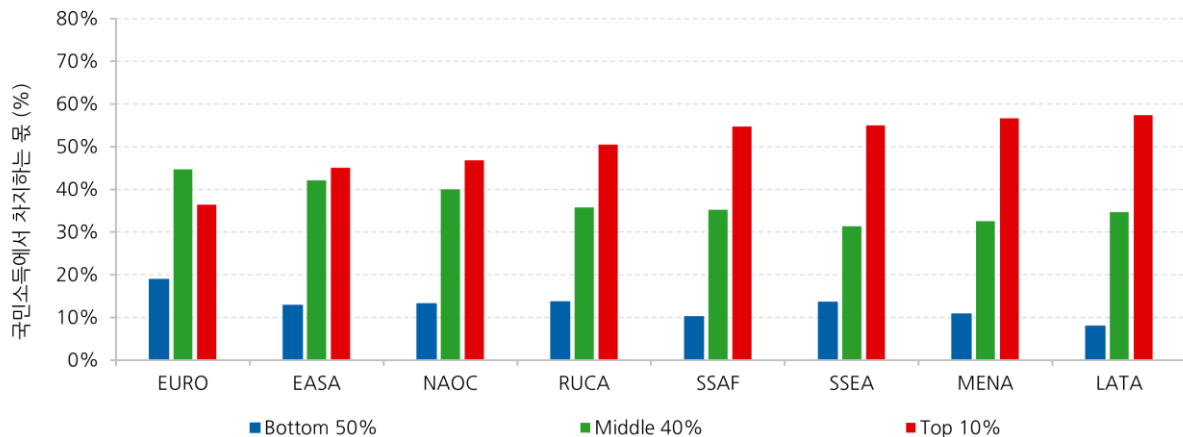
그림 7. 심각한 수준의 지역간 불평등



주석. 지역 간 큰 소득 불평등이 존재함. 남아시아 & 동남아시아의 1인당 월 국민소득은 601유로인데 반해, 유럽의 1인당 월 국민소득은 2,934 유로로 4.9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출처: wir2026.wid.world/methodology.

그림 8.a. 전 세계 각 지역에서의 소득 및 자산 불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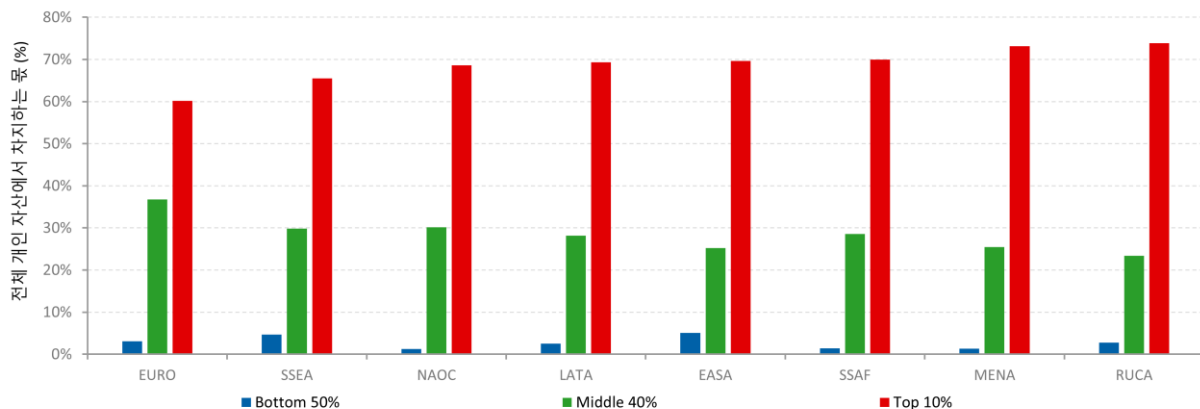
지역 내 소득 불평등, 2025



주석. 모든 지역에서 소득과 자산은 지역 내에 매우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음. 특히 자산은 소득보다 상위층에 훨씬 더 집중되어 있음. 모든 수치는 상위 10%의 점유율에 따라 정리됨. 소득은 개인이 연금 및 실업 급여를 수령한 후, 소득세 및 기타 이전 지출을 차감하기 전을 기준으로 측정함. 순개인자산(Net personal wealth)은 개인이 소유한 금융 자산(예: 주식, 채권)과 비금융 자산(예: 주택, 토지)의 합계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액을 의미함. EASA: 동아시아, EURO: 유럽, LATA: 남미, MENA: 중동 & 북아프리카, NAOC: 북미 & 오세아니아, SSEA: 남 & 동남아시아, SSAF: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and RUCA: 러시아 & 중앙아시아. 출처: wir2026.wid.world/methodology.

그림 8.b. 전 세계 각 지역에서의 소득 및 자산 불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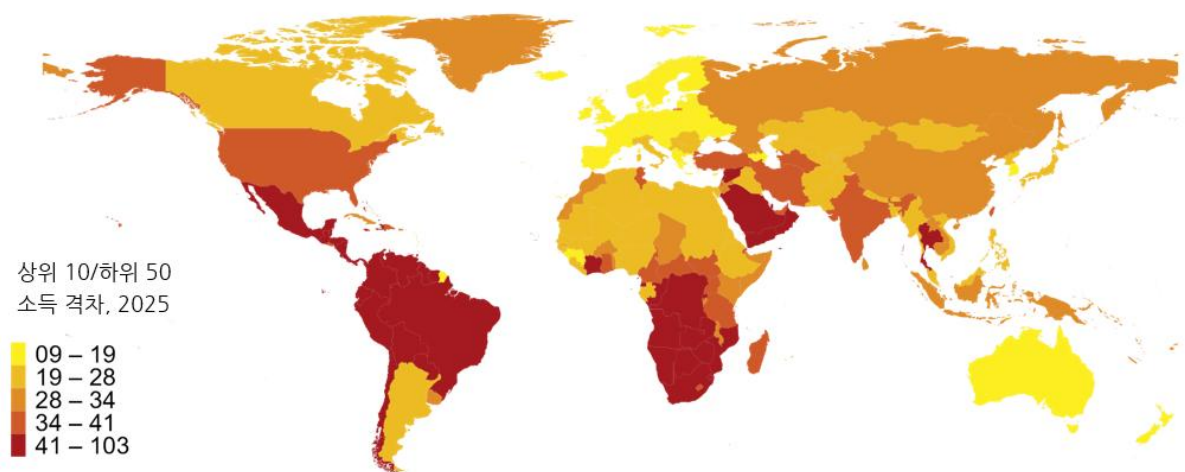
지역 내 자산 불평등, 2025



주석. 모든 지역에서 소득과 자산은 지역 내에 매우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음. 특히 자산은 소득보다 상위층에 훨씬 더 집중되어 있음. 모든 수치는 상위 10%의 점유율에 따라 정리됨. 소득은 개인이 연금 및 실업 급여를 수령한 후, 소득세 및 기타 이전 지출을 차감하기 전을 기준으로 측정함. 순개인자산(Net personal wealth)은 개인이 소유한 금융 자산(예: 주식, 채권)과 비금융 자산(예: 주택, 토지)의 합계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액을 의미함. EASA: 동아시아, EURO: 유럽, LATA: 남미, MENA: 중동 & 북아프리카, NAOC: 북미 & 오세아니아, SSEA: 남 & 동남아시아, SSAF: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and RUCA: 러시아 & 중앙아시아. 출처: wir2026.wid.world/methodology.

그림 9. 저임금과 높은 소득 불평등의 이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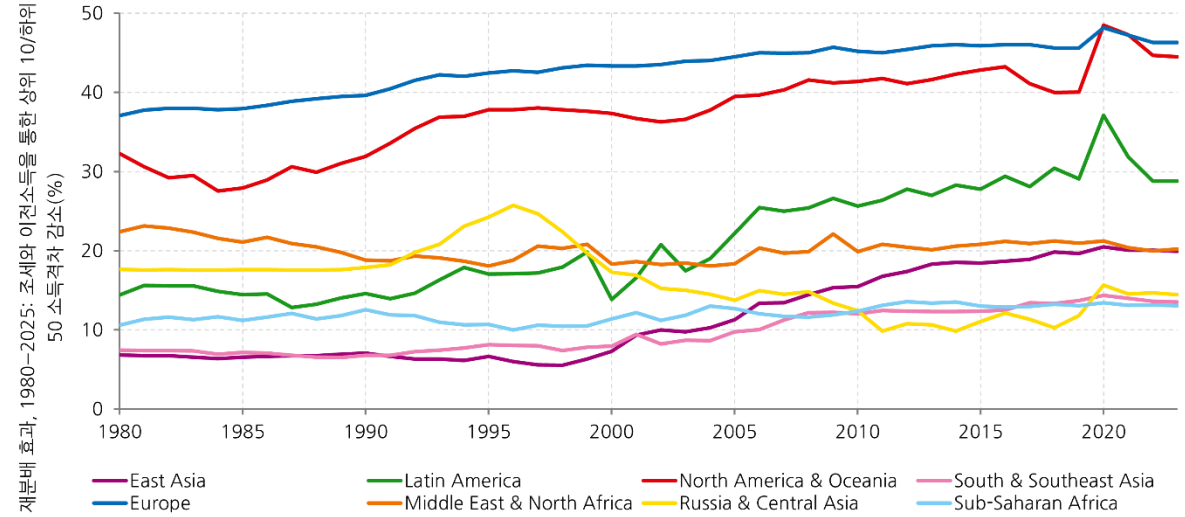
상위 10/ 하위 50 글로벌 소득 격차, 2025



주석, 이 지도는 2025년 각 국가별 상위 10%와 하위 50% 인구의 소득 점유율 비율을 보여줌. 소득은 개인이 연금 및 실업 급여를 수령한 후, 기타 세금 납부 및 이전 소득 수령 전을 기준으로 측정함. 출처: Chancel and Piketty (2021) and wir2026.wid.world/methodolo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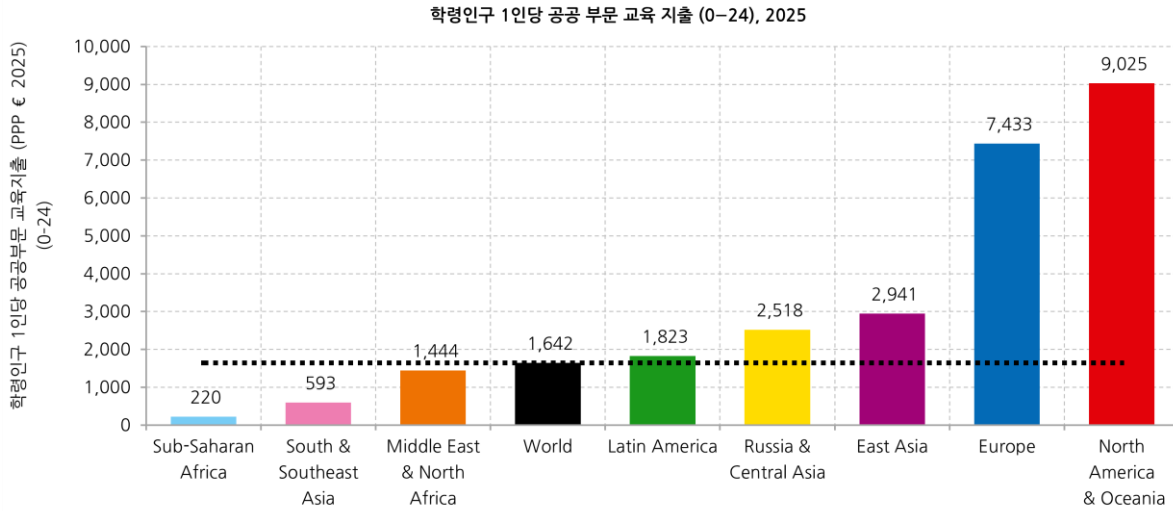
그림 10. 누진세와 재분배 정책을 통한 불평등 완화

재분배 효과, 1980-2025: 조세와 이전소득을 통한 상위 10/하위 50 소득격차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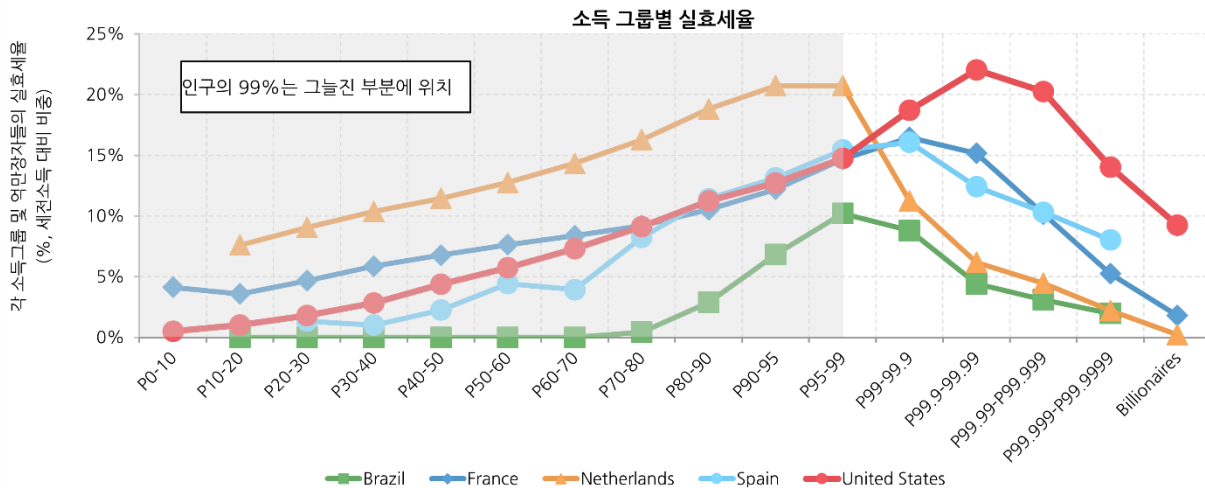
주석, 이 그림은 조세 및 이전 지출이 지역별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줌. 이는 상위 10% 대 하위 50%의 소득 비율 감소 쪽으로 측정되며, 양(+)의 값은 불평등의 감소를 나타냄. 조세 및 이전 지출 체계는 모든 지역에서 불평등을 완화시키지만, 재분배의 정도는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임. 출처: wir2026.wid.world/methodology and Fisher-Post and Gethin (2025).

그림 11. 심각한 수준의 지역간 기회의 불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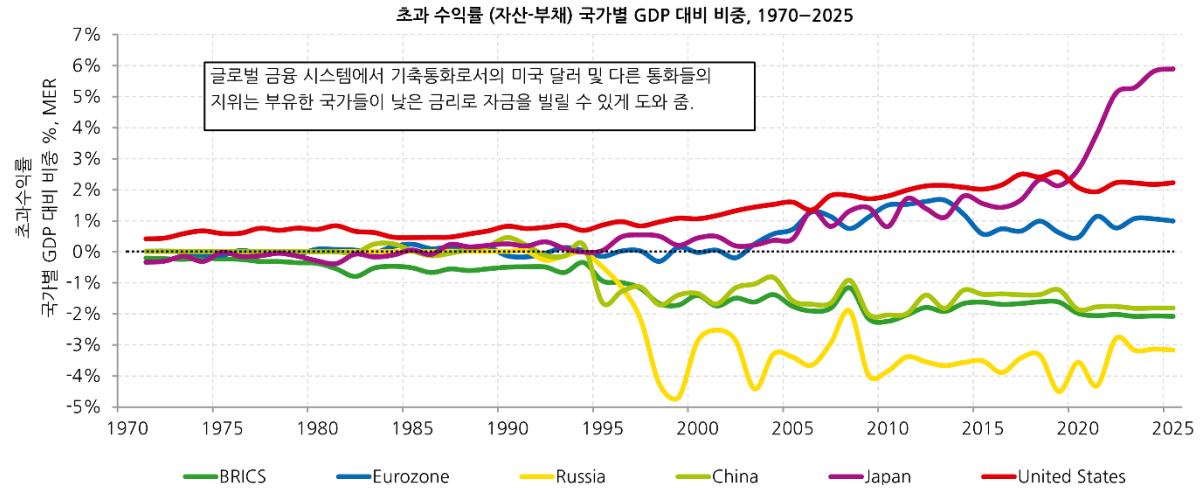
주석. 2025년 학령인구(0~24세) 1인당 평균 공공부문 교육 지출액은 세계 지역별로 매우 큰 격차를 보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220유로에서 북미 및 오세아니아의 9,025유로(2025년 PPP 유로 기준)까지 차이가 나며, 이는 거의 1 대 41의 격차에 해당함. 구매력 평가(PPP)가 아닌 시장 환율(MER)을 적용할 경우, 이 격차는 2~3배 더 커지게 됨. 출처: World Human Capital Expenditure Database (whce.world) and Bharti et al. (2025).

그림 12. 누진세제를 회피하는 초고액자산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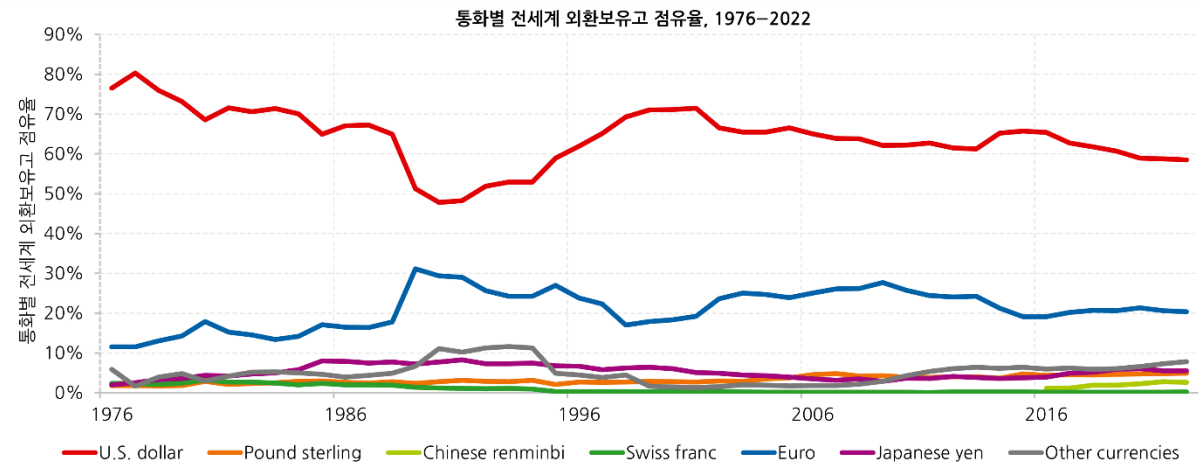
주석. 이 그림은 브라질,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미국의 세전 소득 그룹별 및 억만장자의 실효 소득세율을 보여줌. 소득세율에는 개인 소득세 및 그에 준하는 부과금만 포함됨. 모든 수치는 세전 소득 대비 비중으로 표시되며, 여기서 세전 소득은 연금 수령 후, 조세 및 이전 지출 전의 모든 국민 소득으로 정의됨. P0-10은 소득 분포의 하위 10%, P10-20은 그다음 10% 등을 의미함. 출처: Artola et al. (2022), Bozio et al. (2024), Bozio et al. (2020), Bruil et al. (2024), Palomo et al. (2025), Saez and Zucman (2019), and Zucman (2024).

그림 13. 불평등을 고착화 시키는 국제 금융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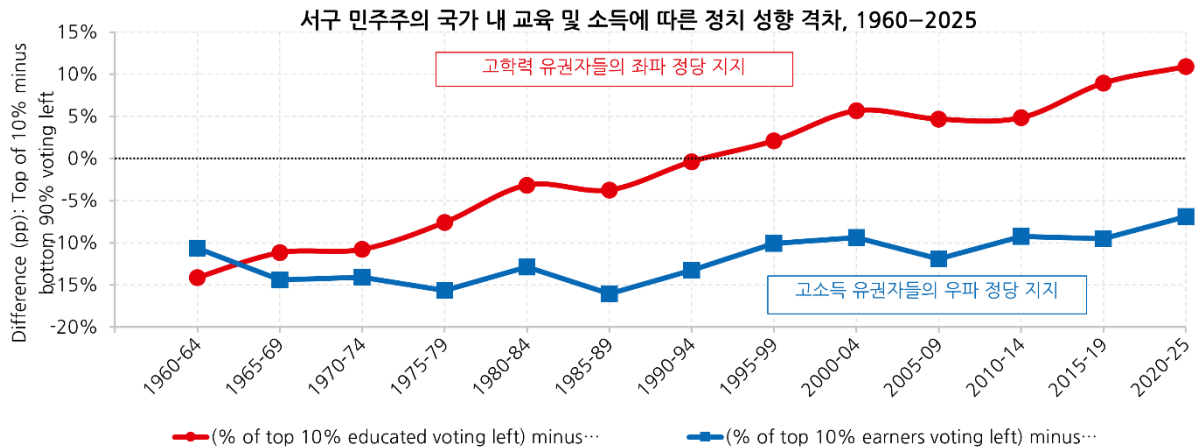
주석. 이 그래프는 국가 GDP 대비 초과 수익 소득(excess yield income)을 보여주며, 이는 해외 자산 수익률과 부채 이자율의 차이로 정의됨. 한때 미국에만 국한되었던 '과도한 특권(exorbitant privilege)'이 이제는 선진국 전반의 현상이 되었음을 보여줌. 2025년 기준 미국은 2.2%의 상당한 특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유로존은 1%, 일본은 5.9%라는 독보적인 특권을 기록함. 반면, BRICS 국가들은 약 2.1%의 지속적인 재정적 부담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이들 국가가 부유한 경제국에 자본을 공급하는 순공급원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함. 양(+)의 값은 금융 특권으로 인한 소득 이득을, 음(-)의 값은 금융 부담을 의미함. (BRICS 국가에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이 포함됨). 출처: Nieves and Sodano (2025) and wir2026.wid.world/methodology.

그림 14. 시장원리가 아닌 글로벌 금융 질서에 따라 발생하는 기축통화국의 특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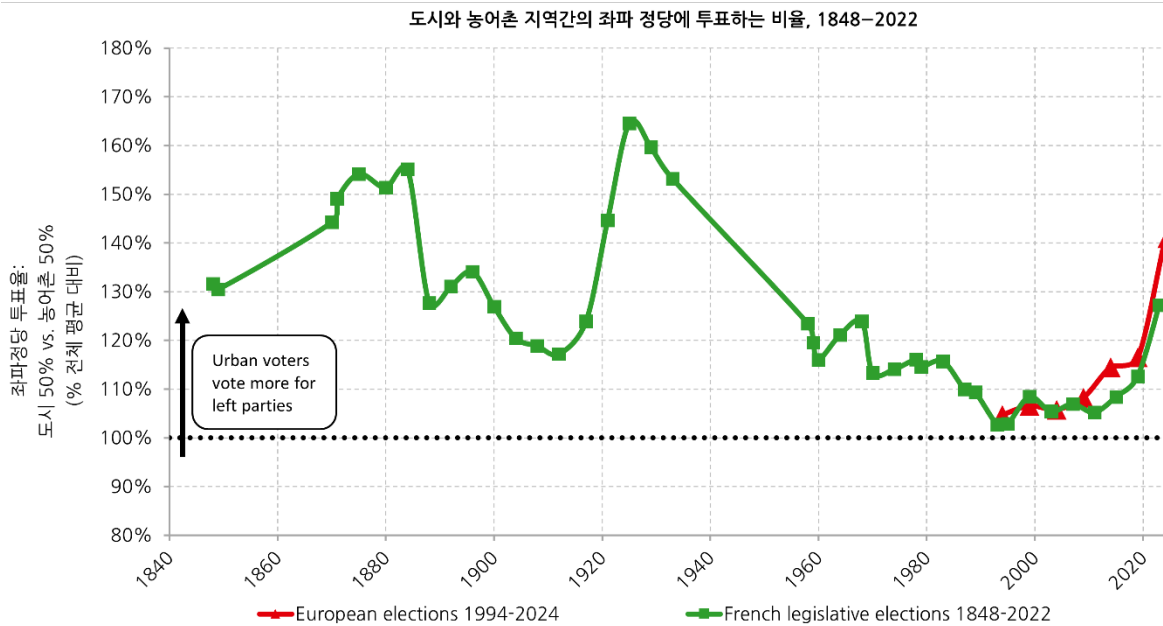
주석. 부유한 국가들은 국제 예치 통화(reserve currencies)의 발행국이며, 이 통화들은 전 세계적으로 국제 거래 및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사용됨. 이러한 통화들은 바젤 III(Basel III)와 같은 국제 금융 규제에 의해 중앙은행 보유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를 통해 지속적인 수요가 확보됨. 이는 결과적으로 해당 국가들의 차입 비용을 지속적으로 낮추는 효과를 가져옴. 출처: Nieves and Sodano (2025) and wir2026.wid.world/methodology.

그림 15. 재분배 및 누진세제를 위한 정치적 연합 형성의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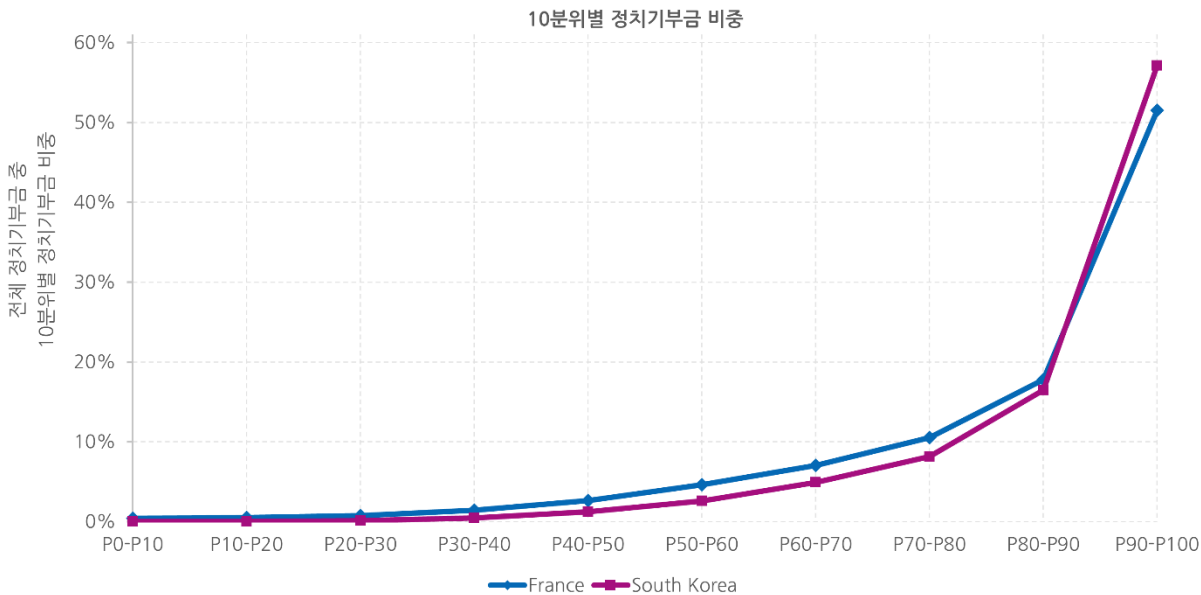
주석: 1960년대에는 고학력 및 고소득 유권자들이 저학력 및 저소득 유권자들에 비해 좌파(민주당 / 노동당 / 사회민주당 / 사회당 / 녹색당) 정당에 투표할 확률이 10%포인트 이상 낮았음. 이후 점차 고학력 유권자들이 좌파정당에 투표하기 시작하면서 엘리트 그룹 내에 지지 정당이 달라지게 됨. 그림은 호주, 영국,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미국의 5년 평균값을 나타냄. 추정치는 소득/교육, 연령, 성별, 종교, 종교 활동 참여, 도시/농촌, 지역, 인종/민족, 고용 상태, 결혼 여부를 통제한 결과임 (해당 변수가 이용 가능한 국가-연도에 한함). 출처: Gethin et al. (2021) and *World Political Cleavages and Inequality Database* (wpid.world).

그림 16. 최근 다시 급부상하는 대도시와 소도시간의 정치 성향의 차이



주석. 이 패널은 도시 지역 대비 농촌 지역의 좌파 정당 투표 비율을 보여줌. 인구 밀집 규모 기준으로 상위 50% 도시 지역과 상위 50% 농촌 지역을 비교한 결과임. 유럽의회 선거(1994-2024)와 의회 선거(1848-2022) 모두에서 도시-농촌 격차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뚜렷하게 확대되었으며, 특히 2024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급격히 상승함. 출처: Cagé and Piketty (2025) and *unehistoireunconflitpolitique.fr*.

그림 17. 정치적 불평등의 심각한 현 주소



주석. 한국과 프랑스의 10분위별 평균 정치기부금 비중. 정치기부금은 상위 소득계층에 매우 집중되어 있으며, 상위 10%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
출처: Cagé (2024).

그림 18. 최저 부유세의 장점: 조세의 누진성 보장과 불평등 완화를 위한 세수확보

글로벌 조세 공정을 위한 제안: 기준, 중도, 적극적인 시나리오

	기준	중도	적극적
부유세	1억 달러 이상 순자산의 2%	1억 달러 이상 순자산의 3%	1억 달러 이상 순자산의 5%
과세대상인원	글로벌 상위 0.0002% (92,140명)	글로벌 상위 0.0002% (92,140명)	글로벌 상위 0.0002% (92,140명)
세수 (십억 달러 기준)	503	754	1,256
연간 세수 (글로벌 GDP 대비)	0.45%	0.67%	1.11%
연간 세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 & 동남아시아 지역 전체 교육 지출 대비)	1.2x	1.7x	2.9x

주석. 이 표는 전 세계 초고액자산가(1억 달러 이상 자산가) 및 억만장자 (총 대략 92,140명의 성인)를 대상으로 한 기준, 중도, 적극적인 글로벌 부유세 시나리오를 제시. 각 시나리오는 세율과 과세 기준선에 따라 구분되며, 예상 세수는 2025년 기준 전 세계 GDP의 0.45%에서 1.11% 사이로 추정. 추정치는 10%의 조세 회피를 가정한 값임. 출처: Global Wealth Tax Simulator (wid.world/world-wealth-tax-simulator) and wir2026.wid.world/methodology.

“우리는 저소득 국가의 자원이 고소득 국가와 부유한 엘리트들의 번영과 지속 불가능한 생활 방식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체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시장의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역사의 유산과 제도, 규제, 정책의 작동 방식을 반영하며, 이 모든 것은 아직 재조정되지 않은 불평등한 권력 관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야티 고쉬

“역사, 국가 간 경험, 이론 모두 오늘날의 극심한 불평등이 필연적이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누진세, 강력한 사회 투자, 공정한 노동 기준, 민주적 제도는 과거 격차를 좁혔으며, 다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2026 세계 불평등 보고서』는 실행 가능한 방안에 대한 실증적 토대와 지적 토대를 제공합니다.”

조셉 스티글리츠

“불평등은 스캔들이 될 때까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는 불평등에 목소리를 부여하며, 오늘날 불평등한 사회·경제 구조로 인해 기회를 박탈당한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도 목소리를 줍니다.”

리카르도 고메즈 카레라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26』은 탁월한 성과입니다. 전 세계적 차원에서 모든 측면의 불평등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결정적 자료입니다. 진정한 글로벌 공공재이자 전 세계적 공론 형성에 필수적인 기여물입니다. 이 지식을 모든 이의 이익을 위해 전파하는 저자들에게 우리는 모두 깊이 감사해야 합니다.”

가브리엘 주크만

“2026 세계 불평등 보고서는 불평등이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선택과 제도, 권력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경제적·성별·기후 불평등이 만연한 세상에서 이 보고서는 이러한 상호연결성을 이해하는 틀을 제시하며 행동을 촉구합니다: 연대를 재건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며, 사회 전반에 걸쳐 번영을 보다 공정하게 나누어야 합니다.”

로와이다 모쉬리프

“극심한 불평등은 우리 사회와 생태계 모두에 지속 불가능합니다. 전 세계 200명 이상의 연구진이 4년간 수행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 이 보고서는 경제적·사회적·생태적 불평등이 어떻게 진화하고 교차하는지 파악하고 행동을 촉진하며 공론장을 제공합니다.”

루카 상셀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되는 시기에 발간된 『2026 세계 불평등 보고서』는 최신 동향을 이해하고 역사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데 귀중한 정보원을 제공합니다. 본 보고서는 소득과 부 뿐만 아니라 성별 격차, 지역 간 불평등, 국가 내 정치적 분열 등 다양한 불평등 지표를 제시합니다. 이러한 불평등의 모든 측면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보고서를 읽고 사실을 이해하며, 이에 대한 정책 논쟁에 참여하세요.”

엠마누엘 사에즈

“『2026 세계 불평등 보고서』는 정치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발표되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평등을 향한 역사적 움직임을 지속해야만 앞으로 수십년간 지속될 사회적·기후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토마 피케티